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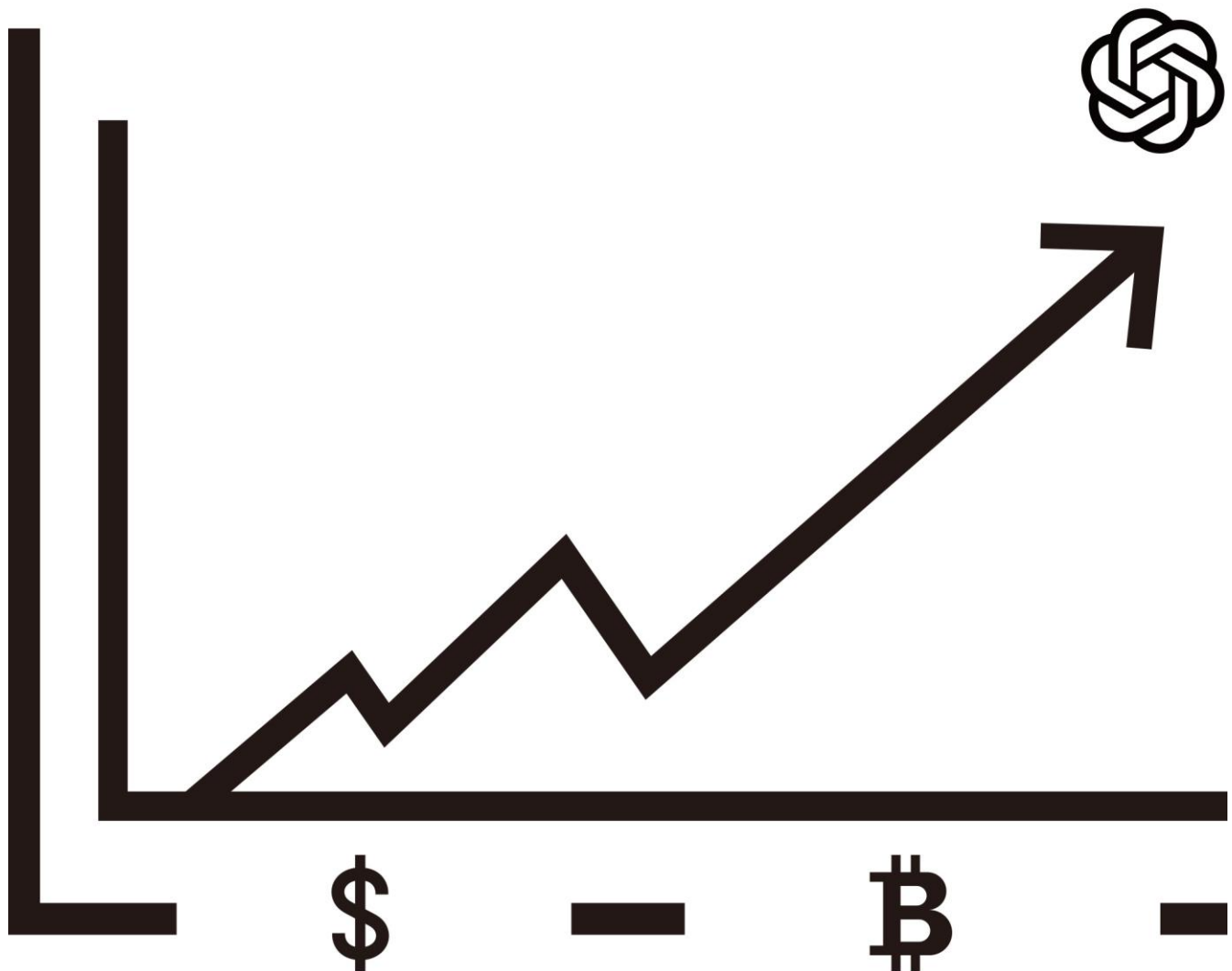
이익 추정치 활용법

오늘의 차트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두나무

칼럼의 재해석

프론트러너, 언더독도 없는 AI, SPAC으로 리스크 줄이기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퀀트

Analyst 이상현

02. 6454-4904

sanghyeon.lee@meritz.co.kr

이익 추정치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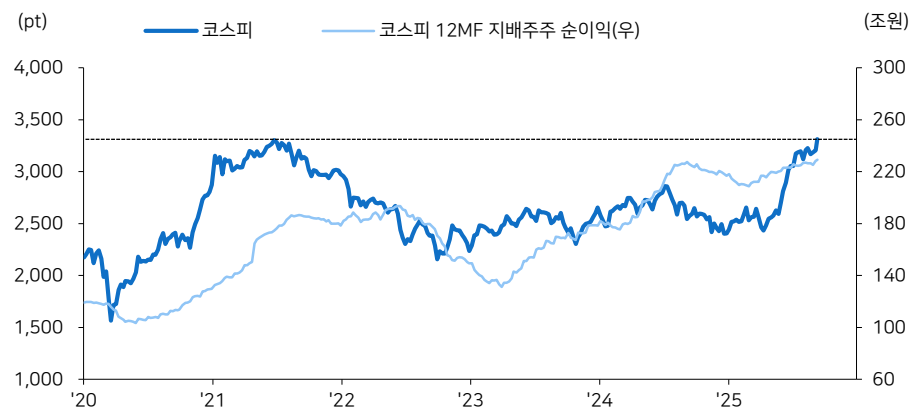
- ✓ 개별 컨센서스 추정치를 활용하는 방법 고안
- ✓ 최대값, 최소값을 제거한 원저화 평균을 사용
- ✓ 12MF 순이익 추정치 ± 1 표준편차 초과 절사평균 사용

이익 추정치 활용법: 개별 컨센서스 추정치 활용

이번 전략공감에서는 개별 컨센서스 추정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제안드린다. 첫째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제거한 원저화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3개월 이내 추정치 중 표준편차 ± 1 표준편차 이내에 있는 추정치만을 사용한 조정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2025년, 2026년 이익 컨센서스는 어떻게 변화해왔나? 코스피는 전일 종가 기준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12개월 순이익 컨센서스는 229조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달성 중이다.

그림1 코스피 지수 및 12개월 선행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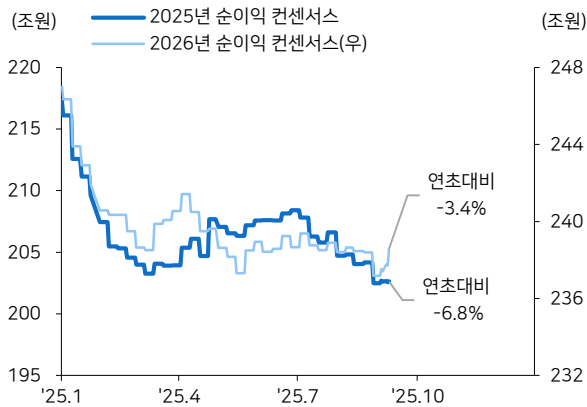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연초대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2026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02조원, 238조원으로 연초대비로는 -6.8%, -3.4% 하향 조정된 숫자이다. 최근 10년 평균 FY1 순이익 컨센서스는 실제치 대비 21% 낙관 추정된 값에서 시작해 현재 시점('25.9.10) 기준 평균 연초대비 -8.3% 하향 조정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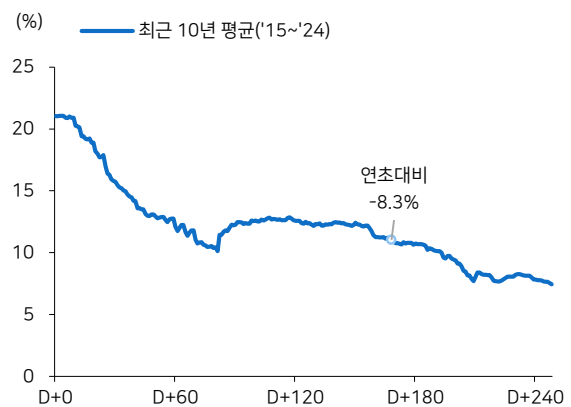
과거 10년 평균치 대비 괴리율을 보면 영업이익은 평균 18.9%, 순이익은 평균 26.8% 낙관 추정된 수치에서 시작돼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로를 보여왔다.

그림2 코스피 2025년, 2026년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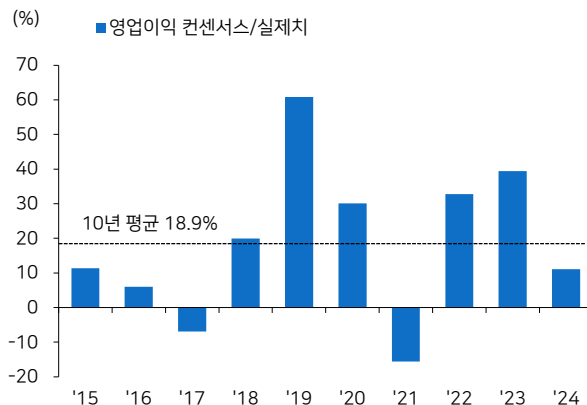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순이익 컨센서스 실제치 대비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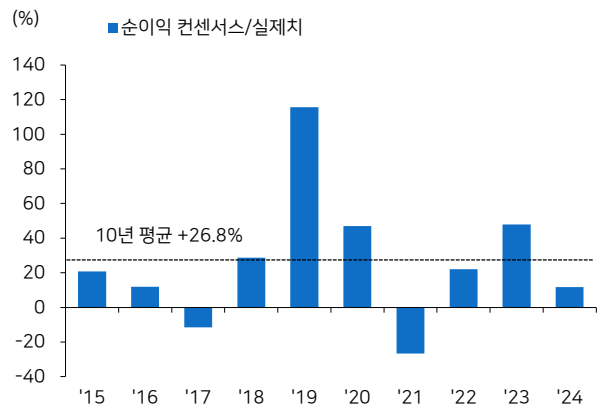
주: 마킹된 시점은 현재('25.9.10) 시점을 추산한 것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초 영업이익 컨센서스 실제치 대비 괴리율 평균 18.9%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초 순이익 컨센서스 실제치 대비 괴리율 평균 26.8%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실적 추정치 존재하는 종목이 코스피 시장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2) 업종, 개별 종목 특이성이 삭제되는 것은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개별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제거한 원저화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3개월 이내 추정치 중 표준편차 +1 표준편차 이내에 있는 추정치만을 사용한 조정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드리고 다음 리포트에서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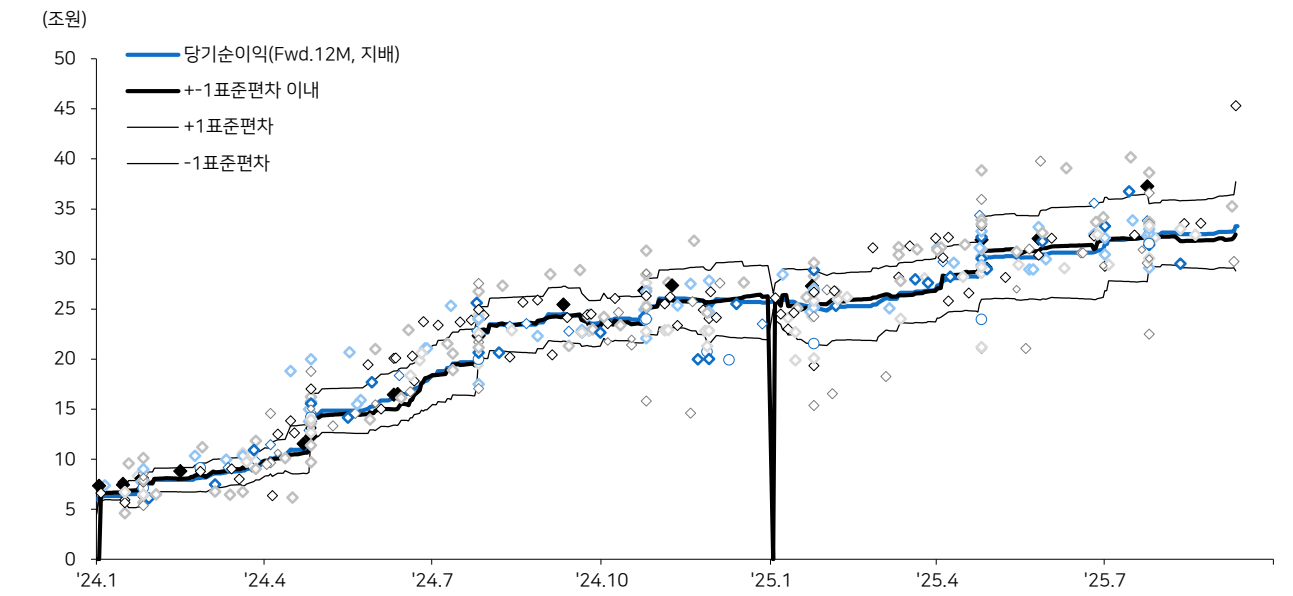
표1 코스피 컨센서스 조정 강도 상위 25 종목

No	Code	Name	순이익 추정 증권사 수(개)	컨센서스 조정 강도(%)	1M 수익률(%)	3M 수익률(%)	12MF 순이익 1M 변화(%)	12MF 순이익 3M 변화(%)
1	A018880	한온시스템	17	29.2	1.5	12.3	689.2	-78.9
2	A02015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7	11.2	-6.4	9.8	-	-
3	A037560	LG헬로비전	5	6.9	-4.1	10.7	10.5	25.5
4	A036420	콘텐츠리중앙	6	6.9	-1.2	-19.7	-	-
5	A006400	삼성SDI	20	5.3	-9.1	16.3	29.8	-62.0
6	A001740	SK네트웍스	6	4.1	-0.2	3.7	17.4	-4.3
7	A051910	LG화학	19	4.1	3.8	39.0	-0.5	-42.1
8	A010060	OCI홀딩스	5	4.0	-3.5	20.4	-10.2	-14.0
9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22	3.8	-10.0	18.0	0.2	23.4
10	A010950	S-Oil	16	3.0	-2.4	1.7	20.7	39.8
11	A003550	LG	5	2.7	0.9	4.2	-4.8	4.1
12	A402340	SK스퀘어	6	2.5	25.1	34.9	0.3	8.1
13	A009830	한화솔루션	14	1.8	-4.8	-6.9	17.7	-59.5
14	A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9	1.7	-5.7	30.4	3.3	5.2
15	A010130	고려아연	5	1.6	13.0	16.7	4.4	26.3
16	A120110	코오롱인더	5	1.6	-5.5	12.9	-2.2	12.6
17	A051900	LG생활건강	14	1.4	-1.8	-15.6	0.6	-25.3
18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8	1.3	-7.7	-3.9	-11.8	-0.7
19	A006280	녹십자	12	1.3	-1.2	-2.0	0.2	39.8
20	A353200	대덕전자	8	0.9	10.7	66.8	8.8	21.7
21	A004000	롯데정밀화학	10	0.9	5.7	16.5	2.7	0.5
22	A170900	동아에스티	6	0.8	1.6	-5.9	9.0	-5.5
23	A005440	현대지에프홀딩스	5	0.8	-4.9	2.6	-4.7	6.1
24	A002380	KCC	5	0.8	8.3	29.4	-5.6	43.7
25	A241560	두산밥캣	9	0.8	-4.0	3.4	1.1	-4.4

주: 컨센서스 조정 강도 = (12개월 선행 순이익 최대최소 절사평균 - 기존 컨센서스)/12개월 순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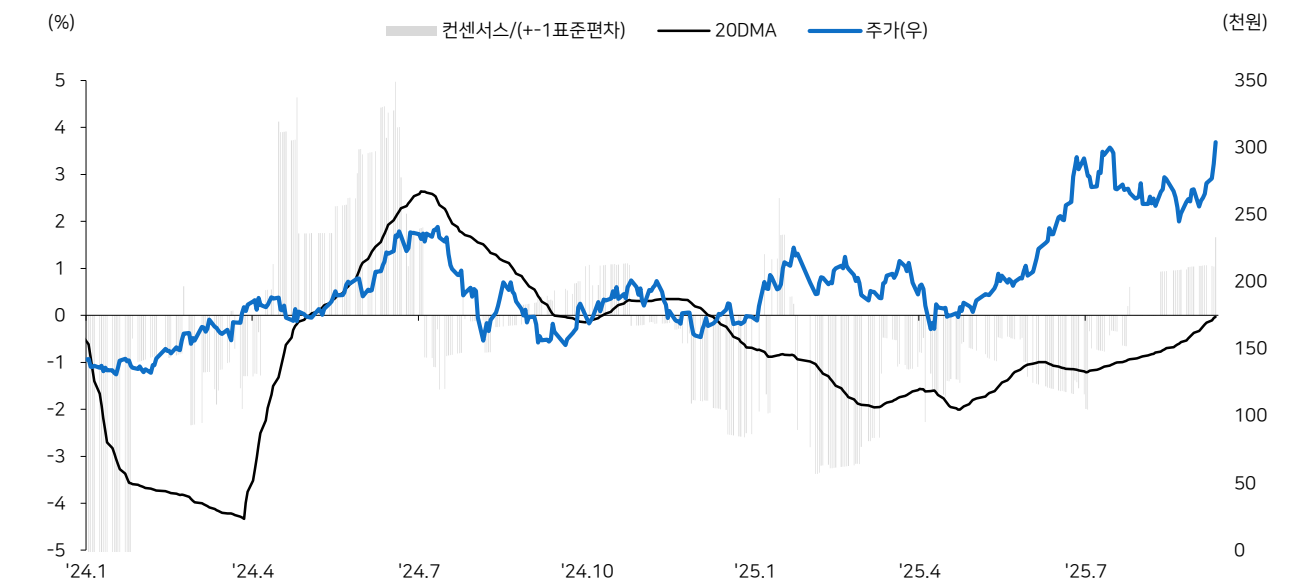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SK하이닉스 12MF 순이익 추정치 +-1 표준편차 초과 절사평균 및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SK하이닉스 12MF 순이익 추정치 +-1 표준편차 초과 절사평균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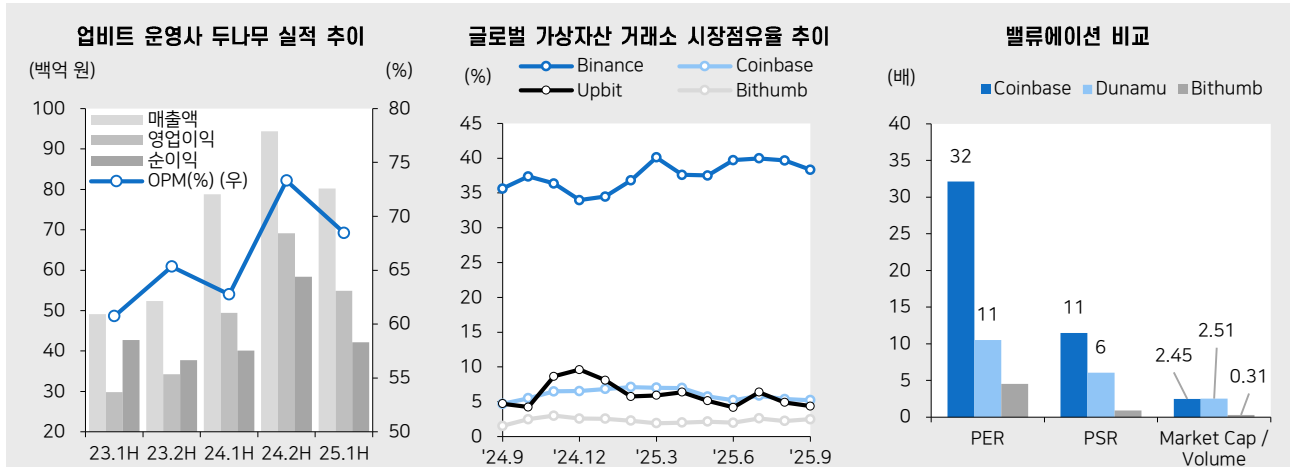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윤여삼 연구위원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두나무



주1: 글로벌 4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월간 현물 거래대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산출

주2: 비교가능성을 위해 PER, PSR 지표는 최근 4개 분기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3: Market Cap / Volume 지표는 현재 시가총액을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나눈 수치

자료: Bloomberg, The Block, CoinMarketCap, 업비트 데이터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난 6월 Circle의 뉴욕거래소 상장 이후 Bullish(거래소, 8월 13일) / Figure(블록체인 기반 대출, 9월 11일 추정) / Gemini(거래소, 9월 12일 추정)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상장했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재무지표와 밸류에이션을 분석해봤다.

YTD 추정 추가수익률 +64%

두나무는 현재 비상장사이지만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통해 추정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10일 기준 추정 시가총액은 10조 7,712억 원이다. YTD 추가 수익률은 64%로 코스피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적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두나무는 매출액 8,020억 원, 영업이익 5,491억 원, 당기순이익 4,21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68%에 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점유율은 5.7%

글로벌 가상자산 45개 거래소의 월간 현물 거래대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해봤을 때 두나무는 5.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Coinbase(6.2%)와 유사한 점유율을 보였다. 다만 Coinbase는 기관 거래 비중(80%)이 높으며 장외거래와 프라이빗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거래대금이 집계되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은 66%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인베이스 대비 현저한 저평가

두나무의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 10.5배, PSR 6.1배로 Coinbase 대비 현저한 저평가 영역이다. 또한 두나무는 견고한 시장지배력과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 환경이 우호적인 거시 환경에서 두나무의 상장 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칼럼의 재해석

우서현 연구원

프론트러너, 언더독도 없는 AI, SPAC으로 리스크 줄이기 (Bloomberg)

불안정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AI가 주도하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고밸류에이션이 이어지면서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다. 화웨이·캠브리콘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롱 포지션 / 엔비디아 숏, 브로드컴(ASIC) 롱 / 엔비디아 숏 등 공든 탑을 흔들기 위해 다양한 투자 포지션과 해석들로 글로벌 AI 산업은 더 치열한 경쟁 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AI가 최대 화두임에도 투자할 만한 순수 AI 기업이 드물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같은 대표 스타트업이 여전히 시리즈 C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장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의 투자 확대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스팩)이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3년 만에 스팩 시장으로 복귀했고, 국내에서도 2025년 고금리 시절 조달된 스팩 물량이 대거 만기를 맞이하며 구조적 변곡점에 들어설 전망이다. 스팩은 청산 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동시에, 신성장 기업에 대한 조기 투자 기회를 제공해 시장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산업 재편기에 접어드는 지금, 스팩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 스타트업 성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IPO와 스팩을 병행한 자본시장 진입 경로 다변화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로봇틱스 등 차세대 기술 기업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증시가 놓친 퍼즐 한 조각: IPO·SPAC의 회복 시그널

테마주 순환이 유난히 빠른 한국 증시에서도, AI만큼 오래가는 화두는 드물다. 그러나 정작 투자할 만한 순수 AI 기업은 부재하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의 AI 반도체 강세가 증시 전체의 랠리를 이끌고 신생 AI 기업들의 상장과 합병이 활발하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캠브리콘 등 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성장 스토리가 AI 기술력과 생태계 주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의 AI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공공 부문 중심의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자본이 투자할 순수 AI 기업은 제한적이다. 국내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조차 시리즈 C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에 IPO 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AI 생태계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초기 성장 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을 주도할 대형 혁신 기업의 등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림1 한국, 중국, 미국 반도체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국내 AI 기업, 시리즈 B/C 단계 소화 중

구분	기업명	투자 유치 현황	기업가치	자금 활용 계획
하드웨어	퓨리오사 AI	(2025.8.31) 시리즈C 브리지 투자 1,700억원 유치	1조원 돌파하며 유니콘 등극(기존가치 8,300억원)	2세대 NPU 레니게이트 양산 및 3세대 NPU 개발
	리벨리온	(2025.9.3) 2,800억원 규모의 상장전지분투자(프리IPO) 유치 금액 상향 조정	기존가치 1.4조원	R&D 및 인력 충원
	딥엑스	(2025.6) 2,000억원대 투자금 유치 중	기존가치 1.2억원	제품 양산을 위한 자금 조달
	망고부스트	(2025.8.26) 시리즈B 투자라운드 출항	기존 4,000억원	데이터처리 가속기(DPU) 및 망고 LLM부스트 R&D
소프트웨어	트웰브랩스,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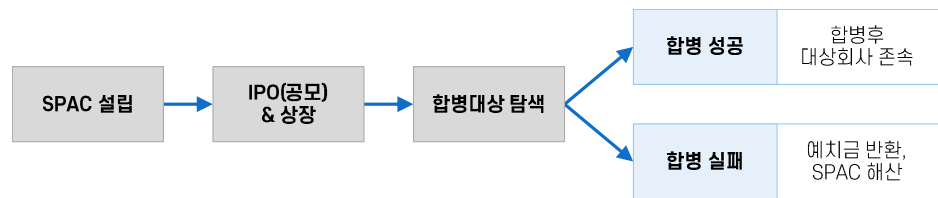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아직 없다'는 것일 뿐, 앞으로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공공 시장 확대,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AI 반도체·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혁신 기업이 등장할 토대는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특히 내년 이후 AI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 검증이 가시화되면 IPO나 SPAC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진입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AI 산업 재편기에 자금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새로운 성장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지를 주목할 시점이다.

골드만삭스, SPAC 시장 복귀: 자본조달 전략 지형 변화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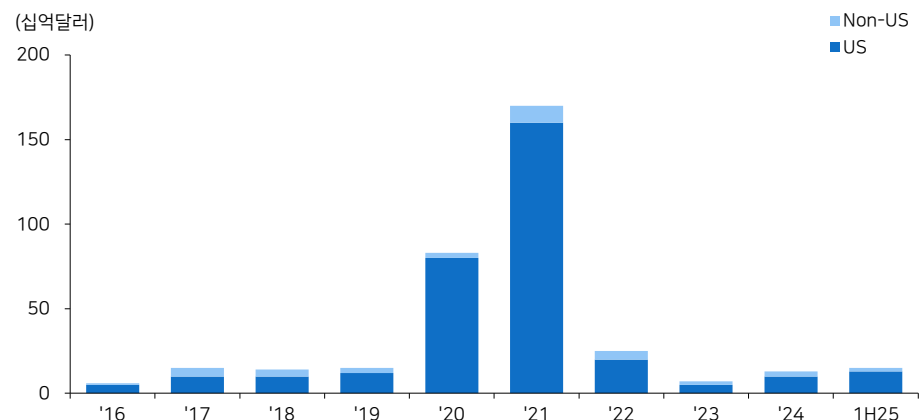
골드만삭스가 3년 만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스펡) 인수주선 업무를 재개했다. 스펡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합병을 통해 비상장회사가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2022년 규제 리스크와 법적 책임 부담으로 철수했던 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최근 미국 IPO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스펡 공모 자금이 재유입되며 시장 규모가 반등하고 있다. 2025년 스펡 IPO로 조달된 자금은 1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골드만삭스를 뒤이어 대형 IB의 복귀는 스펡을 통한 자본 조달이 다시 주요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2 스펡 구조



자료: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글로벌 스펡 발행 규모 추이, 2025년 소폭 성장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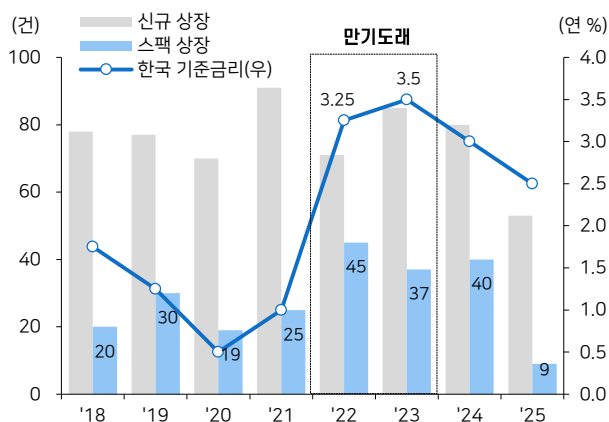
국내 스팩 시장, 2025년 전환점 맞나

국내 스팩 시장은 2022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차례 붐을 경험한 바 있다. 22년 ~24년 스팩 경쟁이 이어지면서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렸으며, 이 시기에 상장된 스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치이율을 제공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3년 만기 구조 특성상 이들 물량이 2025년에 대거 만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만기 도래를 넘어 고금리 환경에서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된다 (상장 스팩 수: 22년 45건, 23년 37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스팩 이벤트(소멸/합병)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스팩 시장 구조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AI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메타버스 산업 열풍 시기와 유사한 자본 조달 환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AI 생태계는 뚜렷한 승자가 부재한 상황이며, 상장된 주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고점을 재차 경신하고 있다. 신규 상장되는 AI 관련 기업들 역시 기존 기업군과의 키מת추기를 통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검증되지 않은 AI 시장에서는 유망한 초기 기업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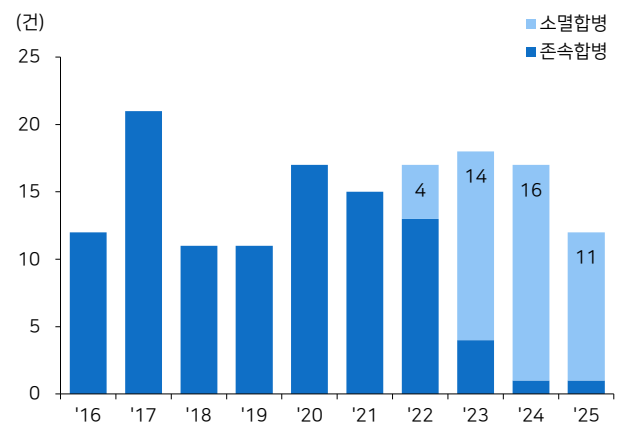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스팩은 유효한 투자 수단이다. 합병에 실패할 경우 청산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고금리 시절에 상장된 스팩들은 연환산 4% 내외의 예치이율을 제공하고 있어 은행 예금 대비 높은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스팩 주가가 청산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리금 보전에 더해 매매차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그림4 신규 기업/스팩 상장 추이



자료: KRX,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스팩 존속/소멸 합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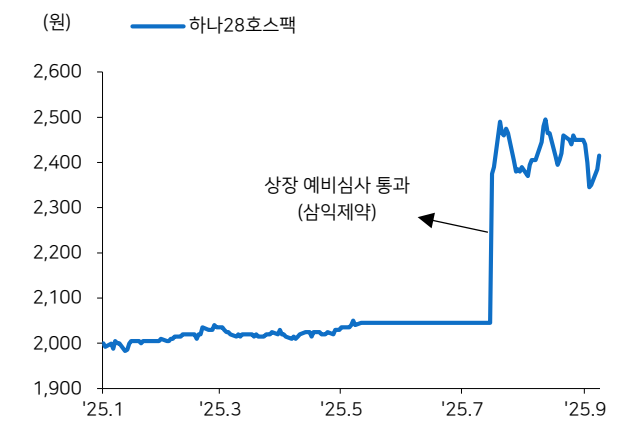
자료: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스펙 투자 전략 정리

구분	이벤트	내용	수익 기회
합병 플레이	합병기업 발표	합병 대상을 찾고 공시 후 예비심사 청구. 심사 결과 확정 후 거래 재개	합병 기대감 유입 → 주가 상승 가능
	합병신주 상장	거래소 심사 승인 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 신주 상장	합병 기업 주식 보유 → 주가 상승 시 매매 차익
	합병 철회	심사 불통과 또는 자진 철회로 합병 무산. 거래 재개일 주가 하락	일시적 급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 → 재반등 시 차익 가능
청산 플레이	청산	상장 후 3년 내 합병 실패 시 상장폐지. 예치금과 이자를 주주에게 반환	1) 원금+이자 회수 가능 → 안정적 수익 확보 2) 공모가 이하 매수 시 원리금+차익 확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합병기업 발표 후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합병 철회 후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AI 산업의 경우, 기술력은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나 상장된 순수 플레이어가 드물고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단계에 있다.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스타트업은 이미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성장 궤도를 검증 중이며,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글로벌 협업 확대 단계에 머물러 있어 투자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정부가 R&D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업 성장 속도와 상장 요건 간의 간극 또한 여전히 크다. 이로 인해 IPO와 자본조달 경로 다변화가 요구되며, S스팩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며 AI 반도체·클라우드·로보틱스 등 신흥 산업군 스타트업에게 IPO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스펙은 단순한 대체 투자상품이 아니라 AI 산업 성장과 자본시장 혁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겨냥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시장 측면에서도 IPO와 스펙의 보완적 조합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스타트업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교차하는 현시점 스펙에 전략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4 만기가 도래하는 스팩

종목코드	종목명	상장일	상태	현재가	공모가(원)	공모금액(천원)
A427950	하나금융23호스팩	2022-09-15	소멸합병(레이저옵텍)	-	2,000	9.0
A436530	케이비제22호스팩	2022-09-22	상장폐지	-	2,000	10.0
A430230	하나금융24호스팩	2022-09-29	소멸합병(아이비전웍스)	-	2,000	14.0
A430460	한화플러스제3호스팩	2022-09-29	소멸합병(셀로맥스사이언스)	-	2,000	10.0
A435380	유안타제10호스팩	2022-10-06	상장폐지	-	2,000	11.0
A435870	에스케이증권제8호스팩	2022-10-06	상장폐지	-	2,000	7.0
A435620	하나금융25호스팩	2022-10-20	상장폐지	-	10,000	40.0
A436610	한국제11호스팩	2022-10-20	소멸합병(차이커뮤니케이션)	-	2,000	10.0
A437780	엔에이치스팩24호	2022-10-20	상장폐지	-	2,000	8.6
A439250	삼성스팩7호	2022-10-26	상장폐지	-	10,000	30.0
A439730	IBKS제20호스팩	2022-10-28	상장폐지	-	2,000	8.0
A440790	교보13호스팩	2022-11-02	상장폐지	-	2,000	7.6
A438580	엔에이치스팩25호	2022-11-03	상장폐지	-	2,000	5.0
A440200	케이비제23호스팩	2022-11-03	소멸합병(세니젠)	-	2,000	12.0
A438220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2022-11-28	소멸합병(유디엠텍)	-	2,000	10.0
A439410	엔에이치스팩26호	2022-12-01	상장폐지	-	2,000	15.0
A442130	유진스팩9호	2022-12-01	상장폐지	-	2,000	6.5
A442310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2022-12-05	상장폐지	-	2,000	11.0
A440820	엔에이치스팩27호	2022-12-16	상장폐지	-	2,000	13.0
A442770	IBKS제21호스팩	2022-12-16	거래	2,125	2,000	8.0
A445360	비엔케이제1호스팩	2022-12-22	상장폐지	-	2,000	8.0
A445970	신영스팩9호	2022-12-27	상장폐지	-	2,000	10.3
A446190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2023-02-24	소멸합병(오아)	-	2,000	9.3
A449020	유안타제13호스팩	2023-02-28	거래	2,110	2,000	17.0
A448740	삼성스팩8호	2023-03-02	거래	10,570	10,000	40.0
A446750	하나26호스팩	2023-03-07	거래	2,105	2,000	11.0
A450410	엔에이치스팩28호	2023-03-09	소멸합병(씨사이트)	-	2,000	6.8
A442900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2023-03-15	거래	10,480	10,000	70.0
A446150	유안타제12호스팩	2023-03-17	거래	2,305	2,000	9.0
A448370	하나27호스팩	2023-04-06	거래	2,095	2,000	10.0
A448760	IBKS제22호스팩	2023-04-06	예비심사청구(삼미금속)	-	2,000	8.0
A448830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2023-04-07	거래	2,130	2,000	9.0
A450050	하이제8호스팩	2023-06-22	거래	2,085	2,000	8.5
A451700	엔에이치스팩29호	2023-06-23	거래	2,075	2,000	25.5
A455250	KB제25호스팩	2023-06-23	거래	2,095	2,000	8.0
A454640	하나29호스팩	2023-06-28	거래	2,085	2,000	9.0
A456490	교보14호스팩	2023-07-06	거래	2,170	2,000	7.7
A456440	DB금융스팩11호	2023-07-12	소멸합병(바이오포트코리아)	-	2,000	10.0
A455910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	2023-07-21	거래	2,070	2,000	8.0
A450940	유안타제14호스팩	2023-07-27	거래	2,070	2,000	8.0
A454750	하나28호스팩	2023-08-10	소멸합병(삼익제약)	-	2,000	13.0
A458320	KB제26호스팩	2023-08-10	소멸합병(우양에이치씨)	-	2,000	10.0
A457940	에스케이증권제10호스팩	2023-08-11	거래	2,075	2,000	6.0
A457390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2023-08-30	소멸합병(티씨머티리얼즈)	-	2,000	13.0

자료: KRX,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Goldman Ditches Ban on SPACs as Blank-Check Firms Stage Comeback

